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정표』分析批判

(민족 민중 혁명의 인식과 실천)

金 甲 喆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정표』分析批判

(민족 민중 혁명의 인식과 실천)

金 甲 喆

目 次

I. 分析對象	1
II. 本文件的 基本性格과 構成	1
III. 細部內容分析 및 批判	2
1. 序 文	2
2. 第 1 章 ‘資本主義 現 段階와 南韓社會의 性格’ 內容要約 및 分析批判	4
3. 第 2 章 ‘ 무엇이 프롤레타리아의 進진을 가로막고 있는가?’ 內容要約 및 分析批判	16
4. 第 3 章 ‘반제반파쇼 民族民衆 革命段階의 戰略과 戰術’ 內容要約 및 分析批判	31
IV. 結 論	46

I. 分析對象

가. 文件名 :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정표 (N.P.R의 인식과 실천)

나. 作者 : 不明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

다. 發行處 :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

라. 作成日 : 1986年 2月 28日

II. 本文件的 基本性格과 構成

南韓을 革命해서 社會主義化하는 데는 소위 부르조아 民主革命段階는 불필요하며 民族民衆革命을 통하여 社會主義革命으로 직행해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本文件的 構成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世界資本主義와 南韓의 性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細分하면 資本主義 발전의 現단계, 南韓社會構成體의 성격과 모순구조를 지적하고

둘째, 무엇이 프롤레타리아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가의 主要因을 言及하면서 諸般 韓國에 나타나고 있는 革命理論 - 市民民主革命 (C.D.R.), 民衆民主革命 (P.D.R.), 反帝民衆民主革命 (A. I. P. D. R.), 三民革命論, 統一民主革命 (U. D. R) 등을 모두 비판하고 있으며

셋째, 南韓에서 反帝反파쇼 民族民衆革命段階를 거쳐 社會主義革命 戰略과 戰術을 主 內容으로 하고 있다.

Ⅲ. 細部 內容分析 및 批判

1. 序文 (內容要約 및 批判)

가. 序文의 內容要約

1970年代 後半 南韓에서는 自生的인 革命力量이 싹을 피우기 시작해왔으며 그것이 날로 發展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革命力量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를 中心으로 革命의 달성에는, 혁명세력내의 內的인 오류와 敵(우리나라의 政府勢力을 指稱함)으로 부터의 外的인 壓力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本文件의 서문에서는 혁명세력 자체의 內的인 混亂을 思想鬭爭의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다. 첫째 問題는 經濟主義的 傾向이라는 것이다. 즉 窮極적으로 노동자들을 中心으로 한 강력한 혁명의지 보다는 단순한 노동운동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勞動者를 주력군으로하는 강력한 革命의 의지 보다는, 84년의 유화국면을 맞이하면서 「敵」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기회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指摘이다. 세번째는 南韓에서의 革命은 勞動者를 主力軍으로 혁명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상황은 市民民主主義 革命(C.D.R), 民衆民主 革命(P.D.R) 民族民主 革命(N.D.R) 등이 등장하여 혁명노선의 混亂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정표」를 作成하게 된 것은 이런 여러가지 混亂을 불식시키고, 科學的인 남한혁명의 概念과 性格에 의거하여 프롤레타리아 革命노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나. 序文의 分析 批判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정표의 전체적인 性格을 규정지어 주는 本序文은 ① 최근까지의 革命論議가 國家獨占資本主義論에 입각한 혁명논의가 일반화되었던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國家獨占資本主義論에 입각한 혁명논의보다는 국제독점자본주의론 즉 우리나라를 신식민지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革命鬪爭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② 南韓革命家들 내부에 경제주의적 경향이 나타나 프롤레타리아의 전진을 가로 막고 있다고指摘하고 ③ 급진적 觀念論的 傾向(三民 三反 파쇼打倒 反파쇼 三民戰線, 三民改憲 싸움 등)이 나타나 革命力量의 강화를 저해하는 좌익기회주의적 오류를 범하였으며 ④ 이상의 經濟主義와 좌익 기회주의 경향들은 南韓革命의 性格과 모순관계에 관한 자의적 해석 戰略戰術의 無知 등 理念 混亂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형을 CDR, PDR, 反帝 PDR, UDR, 3民R의 戰略戰術論이라고言及하고 있다.

이들 주장은 南韓에서의 社會主義革命은 民主革命 단계가 필요치 않으며 民族(反帝) 民衆(反資) 革命을 거쳐 곧바로 社會主義革命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民族民衆革命(NPR)의 論理를 관철시키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序文에 나타난 작성자의 주장은 단순한 容共이나 反體制的 性向의 鬪爭 論理가 아니며 완벽한 마르크스·레닌主義的 이론 무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共產主義革命을 성취하겠다는 戰略路線이다.

2. 第1章 ‘資本主義 現段階와 南韓社會의 性格內容’ 要約 및 分析批判

가. 內容要約

지금까지 南韓社會에서 프롤레타리아 革命論에 대한 觀點에서, 社會構成體에 의한 國家독점, 예속독점 자본주의라는 등 여러가지 分析이 있었으나, 그것들이 명확히 한국사회를 分析하지 못하여 混亂만을 초래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서 本文件의 작성자는 남한의 社會構成은 이미 國家獨占資本主義의 단계를 넘어서 美國이 주도하는 「국제독점 자본주의의 段階」라는 分析이다. 이런 分析의 근거하에서 남한에서의 프롤레타리아革命은 帝國主義 美國과 예속독재정권인 現정부를 동시에 축출해야 된다는 것이며, 이런 국제독점자본주의라는 規定을 내린 南韓의 社會性格에 대해서, 第1章에서는 資本의 論理와 역사적 實體에 立脚하여 “정확한 分析”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1) 資本主義 發展의 現段階

第1節 資本主義 發展의 現단계는 제국주의 1단계를 비롯하여 4個의 小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구체적인 分析을 하는 것은 종래의 國家독점 자본주의는 2次世界大戰 이후 공산진영의 팽창에 對應하여 國際資本主義가 形成되었으며 南韓의 현재적 상태가 「국제독점자본주의」라는 전제에서 出發하고 있다.

이렇듯 資本主義 發展의 現段階의 내용은 국제독점 자본주의의 단계가 美國을 中心으로 資本主義 國家에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 背景을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 등장과 比較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帝國主義의 제 1 단계는 독점 자본 및 국가독점 자본의 형성을 다루고 있다. 제국주의 1 단계에서는 1차세계대전의 여파에 따른 러시아에서의 10월 革命의 결과, 帝國主義 國家들이 소비에트체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동자운동을 彈壓하는 國家獨占資本主義와 독재체제로 변신한다는 것이다.

帝國主義 第 2 段階는 국제 독점 자본 단계라는 것으로, 이 단계가 形成된 배경은 第 2 次世界大戰後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에 따라, 이의 방지에 既存 帝國主義 體制는 혈안이 되었다. 그 결과 美國이 핵심이 되어 反共을 전제 조건으로 한 국제 독점 자본주의 體制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國際獨占資本主義의 신식민주의에 의한 통합지배는 부르조아지를 포섭대상으로하는 戰略體系이기 때문에 신식민지 민족부르조아지는 帝國主義에 예속되어 사실상 제국주의와 生死를 같이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國際獨占資本主義 단계에서의 民族解放鬪爭의 담당자가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한 民衆임을 말해주며, 新植民地 民族解放鬪爭이 제 계급연합에 의한 民族運動이 아니라 帝國主義 통합적 지배체제를 부정하는 반제 民衆權力體制의 樹立을 지향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新植民地體制와 民族解放鬪爭은 국제 독점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美國중심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소련중심의 民族解放鬪爭을 저지하기 위하여 新生國家들을 新植民地體制로 이끌어가고 있다.

한편 南韓의 新植民地化는 第 3 世界 여러 나라들의 新植民地化와는 다르게 이루어져 있다는 시각이다. 왜냐하면 南韓에서의 新植民地化하는 과정은 南北의 分斷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美帝國主義와 하나가 되어 資本主義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目標은

新植民地의 일반 국가들의 민족민주혁명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第1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세계체제의 역관계의 主要内容은 戰後(第2次世界大戰後)의 國際獨占資本主義는 소비에트의 등장과 식민지체제의 붕괴라는 狀況에서 美國의 세계통합 지배체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제국주의내의 노동자가 맡았던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의 세계사적 임무는 新植民地 勞動者들이 主軸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新植民地 民族解放이라는 일국혁명의 관점에서 세력관계를 보면 주력군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와 신식민지 노동자가 되어야 하며, 同盟勢力으로서 예비군은 農民과 貧民이 되어야 하며, 제휴세력은 급진 자유주의자와 小부르조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間接的인 革命豫備軍은 共產主義 國家와 隣接國 노동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2) 南韓 社會構成體의 性格과 모순구조

南韓 社會構成體의 性格과 矛盾構造는 「南韓 社會경제적 토대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제반사회구성체론 비판」까지의 5개의 小項目으로 되어 있다.

南韓 社會구성체의 성격과 모순구조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分析하여 혁명을 가장 원할하게 수행하는 방편으로 자신들의 革命戰略戰術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혁명의 견해를 論理的으로 合理化하고자 하는 思想鬭爭의 의미도 包含되어 있는 內容이다.

序論部分은 美帝國主義가 한국이라는 특수성(공산주의 국가와 가장 첨예하게 對立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것)때문에 어느 植民地國家보다도 전일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發展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 韓國과 美國이 정치 군사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는 관계로 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南韓社會의 政治的 上部構造 즉 부르조아독재의 가장 반동적인 形態인 예속된 독재로 本質을 把握하고 그에 의거해서 혁명의 戰略과 戰術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단기적으로 南韓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해결해야 할 당면모순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좀더 상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사회 경제적 토대에 대하여」의 내용을 보면, 南韓은 자본이 自生的으로 形成된 것이 아니라 美帝國主義 援助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남한 자체의 위치가 북한공산주의와의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資本主義化 현상이 가속되었다. 그러나 국제독점 자본주의 수직적 분업체계에 의해 착취당할 수 밖에 없게끔 되어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社會構成體를 壓縮해서 보면 남한은 美日 국제파시즘 (독재주의)을 매개로 하여 국제독점자본에 의해 규정되는 新植民地 社會라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사회의 經濟的 實相은 「예속독점 자본주의」이며, 그 정치적 구조는 미국과 日本의 규제를 받는 예속파시즘의 國家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둘째, 「예속파시즘의 본질」이라는 項目의 내용을 보면, 南韓社會 자체를 軍部の 영향력을 받기는 했지만 현재는 부르조아지 독재국가로 定義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남한사회를 分析하고 있는 특성으로는 남한의 군사독재에 의한 정치체제는 新植民地 부르조아독재 국가중에서는 가장 모범적 형태라는 것이다.

한편 남한사회가 다른 예속독재국들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모범적으로 發展할 수 있었던 것은, 北韓과 대치하고 있는 反共의 보루로서 對

蘇 戰略的 가치에 따라 美國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한이라는 독재사회를 단순히 군부독재라고 규정 지을 때는 문제성이 크게 생기며, 그것 自體가 革命性을 저해하는 오류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예속된 독재정부를 반민족적, 반공=반프롤레타리아적(반민중적) 예속집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남한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민주성의 공격을 찬성한다는 것이다.

세째, 「南韓의 階級構造」라는 小項目은 지배계급의 형성과정 성격과 피 지배계급의 형성과정과 성격이라는 2부분으로 되어 있다.

本項目의 全體的인 내용은 예속독점 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남한의 자본주의화는 남한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로 區別지우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南韓社會에서 被支配階級인 小農과 貧民은 혁명집단이 되어야 하며 예속집단인 독점자본가는 타도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자본가, 급진 및 보수 자유주의자는 제 휴세력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支配階級の 형성과정과 성격을 다루고 있다. 南韓의 支配階級은 45年 이후 형성된 예속자본가 집단이라는 것이며, 그 뿌리는 日帝下의 親日派 集團이 그 脈絡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南韓社會 支配集團의 주체는 결정적으로 남한을 對蘇前進基地의 관점에서 후원하는 제국주의이며, 혁명의 과정에서 타도 대상은 帝國主義와 남한의 제국주의 예비군(남한사회의 대리 지배 집단)까지를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被支配階級の 형성과정과 性格에 관한 내용으로서, 남한에서의 피 지배계층은 공산혁명의 주력군을 담당할 프롤레타리아트를 中心으로 하여, 同調勢力으로서의 農民과 都市貧民, 소부르조아지 급진 자유주의자들까지 限界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혁명의 主力軍내지 동조세력으로서 各階層의 형성과정과 역할, 행동의 한계까지를 把握 分析하고 있다.

동조세력으로서 농민이나 都市貧民·소부르조아지·자영 零細商人·소수의 화이트 칼라계층·학생 및 진보적인 靑年勢力들 까지 多樣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革命의 主力軍으로서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남한이 美國의 영향에서 국제독점 자본주의화하는 1950년 이후 부터 形成되었다고 그 背景을 밝히면서, 그들의 革命性에 대한 상세한 分析을 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에 대한 分析을 보면 그들은 통일된 계층이 아니며 유동적 집단이긴 하지만 그들은 科學的 社會主義理念의 체득을 基盤으로 하여, 革命鬭爭에 있어 훌륭한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集團으로 評價하고 있다.

네째, 「南韓의 矛盾構造」에 관한 小項目은 ① 기본모순과 주요모순의 概念整理 ② 캡(Capitalism : 資本主義) 모순구조의 역사적 전개과정, ③ 南韓 모순구조의 대하여 項目으로 구별하여 서술하면서, 共產主義者들의 基本理論에 속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제시한 모순의 法則과 관련된 일반론을 먼저 설명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사회를 分析하고 있는 내용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本項目에 우선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矛盾論에 관한 것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의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모순의 문제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南韓 革命論者들은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經濟的 側面과 政治的 側面을 구별하지 못하여 혁명운동에 混亂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混亂된 모순의 정확한 정립이 혁명의 선결요건이므로 南韓의 정확한 모순구조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資本主義 矛盾構造의 역사적 전개과정」 項目下的 내용으로서,

고전적인 자본주의는 사회적 생산과 사적 所有間의 모순이 基本矛盾이자 주요모순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변화하였으며 그 結果는 현대의 자본주의는 고유한 資本의 運動法則에 의해 발전하여 왔고 특히 第2次世界大戰 以後에는 노동자와 자본가 모순의 내적 모순과 여기서 비롯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 體制라는 외적모순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다. 다른면으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외적모순은 내적모순을 가속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끝으로 「南韓 모순구조에 대하여」 項目에서의 남한의 모순관계를 앞에서 分析한 여러 理論에 맞추어 結論을 도출하고 있는 部分이다. 즉 현재 南韓社會의 모순은 生産의 社會的 性格과 私的 所有間의 모순 즉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기본모순의 구체적 현실태로서의 주요모순은 南韓 民衆과 국제독점 자본주의간의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런 모순구조의 도출에 따라서 南韓에서 혁명운동은 南韓을 후원하는 帝國主義에 대해서는 우회공격을 發展시켜 나가고, 동시에 예속독재체제에 대해서는 직접공격을 수행하면서 반제국주의 革命鬪爭을 진행하겠다는 관점이다.

第2節의 마지막 部分인 「諸般 社會構成體論 批判」에 관한 小項目下的 내용은 ① 주변부 자본주의론 비판 ② 國家獨占 資本主義論의 批判 ③예속 국가독점 자본론 비판 등의 項目을 主題로 하여, 과거 주로 民衆關係의 革命的 觀점을 밑받침해주는 理論이었던 社會구성체론을 批判하고 있다.

「① 주변부 자본주의론 비판의 내용은, 南韓의 經濟的인 면을 주변부 資本主義로 보는 것은, 南韓이 日帝時代의 반봉건 사회로 부터 전후 주변부 資本主義 社會로 履行했다고 보는 견해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南韓社會의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주변부 資本主義論은 남미에서 나타난바 있는 종속이론을 주로 학문적 차원에서 展開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변부 자본주의론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역량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경기회주의자로 빠지는 오류까지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의 비판」項目下の 內容은 우선 國家獨占資本主義論의 탄생배경이 1970年代 南韓社會의 左傾運動圈이 자신들의 理論合理化的의 手段으로 마르크스主義 理論을 도입하여 역대 정부의 독재 및 국민들간의 대립 관계를 說明하는 方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의 狀況을 보면 韓國의 현실에 더이상 妥當性이 없는 진부한 理論이 되었다는 批判이다. 좀더 구체적인 國家獨占資本主義論에 대한 批判을 보면 중요한 美帝國主義에 의한 支配를 外的矛盾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國家獨占資本主義論은 개량주의, 기회주의 및 무정부주의를 낳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③ 예속 국독자론 비판」項目下の 內容은 예속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이 한마디로 국가독자본주의론과 주변부 자본주의론의 機械的 結合에 불과할 뿐이지 남한의 사회현상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批判을 하고 있다. 즉 外樣에서 보면 국가독점적인 性格과 예속적 성격을 다 包括한 것처럼 보이나 實際內容을 보면 기계론적인 결합 자체에 限定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예속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은 民族的 要求의 實踐을 미루어 버리고,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를 보장, 관철시키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오직 政治權力 問題만의 해결을 위해 여러 세력과 제휴하는 길로만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革命의 시각에서 정확히 남한 사회를 分析하지 못하고 예속 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은 그 중착점이 기회주의적, 개량주의적 현상에 그쳐버렸지 자신들의 주장에서 볼 때는 未洽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社會構成體論에 立脚한 국제독점 자본주의 즉 新植民地論이 妥當하다는 것이며 이런 신식민지론의 근거에 따라서 打倒對象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 分析 批判

第1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나라를 本文件이 나오기 전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규정했던 內容을 비판하면서 국제독점 자본주의라는 것을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第1節의 내용과 우리나라를 南韓 革命이라는 名稱으로 正형화하면서 우리 남한의 階級構造·矛盾關係·社會構成이라는 것을 사회주의 혁명의 시각에서 분석한 第2節의 내용으로 構成되어 있다. 국제독점 자본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한 民族解放論理이며, 한국사회모순극복을 위한 階級鬭爭 論理를 正當化한 革命論理이다.

(1) 資本主義 發展의 現段階의 分析 批判

資本主義 發展의 現段階를 分析하고 있는 本內容은 원래 노동자를 彈壓하는 독점 자본주의 였으나, 第1次世界大戰과 볼셰비키 革命後 國際共產主義 세력이 등장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자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그후 世界第2次大戰이 일어나면서 共產主義者들이 노동자를 中心으로 하여 革命勢力으로 새롭게 부각되자 종래 獨占資本主義 國家들은 국제독점 자본주의로 변화하여 자신들의 단결을 공고히 하면서 弱小國家들을

新植民地 形態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資本主義를 마르크스·레닌主義 시각에서 비판하고 分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레닌의 帝國主義論이 世界 第2次大戰 以後 식민지의 宗식으로 한계성이 노출되자 1960年 以後 모스크바聲明(81個 共產黨 및 勞動黨 大表者會議 聲明)에서 新植民地論을 定立하고 민족민주혁명노선을 第3世界 革命論으로 定式化하였다. 종속이론좌파(레닌주의)의 매관, 예속자본론을 결합 이론화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韓國이 美國의 新植民地라는 주장의 妥當性이 과연 있는가가 問題로 제기된다. 第1節의 끝부분에서 言及된 세계체제의 역관계는 우리나라에서 社會主義 革命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主力軍과 同盟國을 設定하고 있는 內容으로서, 共產主義者들은 의식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젊은 학생들까지 共產革命을 위한 전위부대로 使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共產革命의 타도대상으로서 資本家 및 부르조아지를 타도대상으로 設定하고 있는 바, 이것은 스탈린의 「레닌主義 기초(1928)」의 교조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2) 南韓 社會構成體의 性格과 矛盾構造 分析 批判

第2節 우리나라에서 革命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회의 경제적 토대에 관한 分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權力의 본질 그리고 既存 左傾革命 團體들의 주장까지를 비판하고 있는 內容이다. 이를 묶어서 分析하면

첫째, 우리나라 社會의 特性과 우리나라 정부의 본질을 밝힌 1) 2) 항의 內容은 우리나라가 현재 철저히 美國과 日本에 經濟的 및 政治的으로 종속이 되어있으며, 이런 종속된 현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政府를

주요 攻擊對象으로 그리고 美國을 부차적인 공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本文件이 작성된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共產化는 世界共產化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規定지우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다른 하나의 측면은 우리나라가 共產主義의 대항기로서 위치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것은 共產主義者들의 侵略에 따른 불가피한 對應戰略임을 볼 때, 本文件은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6.25 사건의 실상까지를 歪曲하고 있다.

둘째는 3) 4) 항의 內容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階級構造를 分析하면서 마르크스·레닌主義者들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계급을 규정지우고 있다. 그리고 99.9%에 해당하는 勞動者를 중심으로 被支配階層이 支配階層을 타도해야 한다고 노동자를 주력군으로 한 공산주의 革命論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99.9%가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人口의 99.9%가 착취를 당한다는 것인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수치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이 共產主義 革命에 동조하게끔 선동하는 內容이다.

세째, 「5) 諸般 社會構成體論 批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좌익혁명단체들이 자신들의 혁명노선이 타당하다는 것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思想鬭爭에 해당하는 內容이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회의 일부현상만을 보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社會를 공산주의 혁명에 맞게 재단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들이다. 여기서는 共產主義者들이 흔히 빠져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 左傾革命團體가 다른

團體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共產主義 革命을 위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된 것이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左傾運動圈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사회는 어떤 것인가하는 문제다. 이는 獨裁政權을 타도하고 대안으로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제시하는데 우익독재는 타도하고 좌익독재는 찬성이라는 당파성 理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모델로 하고 있는 蘇聯의 一黨獨裁體制, 經濟的 落後性, 侵略性은 말할것도 없고 東·西獨의 경우 서독에 비하여 뒤떨어진 동독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다. 베르린의 철조망은 동독국민의 서방망명을 막고자 동독에서 엄청난 돈으로 만든 것이었다. 북한의 경우는 동독보다도 진부하여 모든 言論媒體와 주민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諸般社會構成體論에 관한 비판은 急進民民鬪의 관점에서 종래 民民鬪의 견해를 비판한 思想鬪爭에 해당하는 理論이며, 작성자나 이런 생각을 가진 集團이나 사람은 民族主義者나 民主主義者가 아닌 공산주의 一黨獨裁의 수립을 획책하는 革命分子임을 명백히 證明해주는 內容이다.

3. 제 2 장 ‘무엇이 프롤레타리아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가?’ 內容要約 및 分析批判

가. 內容要約

南韓에서 참된 人間解放을 성취하기 위해 계급투쟁의 歷史를 基本認識으로 해서 1945年부터 53年의 덮어 두었던 歷史를 음미하고자 했다. 韓國이 美國 主導의 國際獨占資本에 의해 부르조아 民主革命을 遂行했기 때문에 民主革命을 反復할 必要가 없다. 따라서 當面課業은 民族民主革命(N. D.R)에 의해 革命을 完遂해야 함을 主張하고 있다.

(1) 帝國主義(國際獨占資本)가 遂行한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

- 45 ~ 48年 : 프롤레타리아 反帝反封建革命과 帝國主義의 (反動的) 부르조아지 民主主義의 革命의 對立 鬭爭
- 韓半島의 分轄은 두 적대계급간의 물리력의 대치에 의해 나타났으며, 美蘇에 의한 分轄占領은 南北의 革命情勢의 展開過程을 제약했으며
- 美軍政은 大衆的 革命情勢의 發展을 積極沮止, 교란(左右合作 強要), 紛裂(朝鮮獨立問題 유엔 上程)시키는 한편 부르조아 民主主義制度 導入, 부르조아지적 改革政策, 高度의 政治的 전술구사(合作, 예속집단부식, 反共政策 現實化, 反共政權樹立劃策)를 통해 革命權力的 基盤을 와해시킴.
- 美軍政은 南韓政權을 「朝鮮內的 유일한 政府」로 認定, 國際獨占資本의 利益確保함. 歷史發展段階에 따라 朝鮮의 革命은 徹底한 反帝反封建革命을 要求했었는데 美軍政은 民解鬭의 繼承者인 프롤레타리아 革命遂行을 積極 방해, 저지하고 封建地主와 親日 反動勢力을 國際獨占資本인 美軍

政의 예속집단으로 포섭하고 封建的 제모순을 緩和(小作料 引下)하고 부르조아지적 改革(勞動法令實施, 農地改革政策)을 推進함.

○ 日帝가 朝鮮을 식민지 封建社會로 온존시킨 데 반해 美帝는 反共·反프롤레타리아의 戰略으로 南韓을 資本主義化시켜, 歷史發展段階와 전혀 무관한 獨占資本을 創出, 民族經濟로서의 可能性을 封鎖, 南韓은 北韓에 對해 부르조아지적 적대감을 형성, 제국주의논리를 積極 방어하는 전진기지가 된 것으로 보고있으며

○ 그러므로 美帝타도없이는 民族解放鬪爭이 勝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 1948 ~ 1956 : 南韓에서 反封建 民主革命이 완수되었다고 評價

○ 南韓의 獨立은 기만적 獨立으로 反共·프롤레타리아(反民解鬪)라는 任務賦與, 世界革命의 情勢가 帝國主義로 하여금 社會主義陣營과의 대치 상황으로 轉換, 初期 부르조아지적인 議會共和制는 「合法的 節次」라는 民族革命의 遂行을 하지 못하고 封建地主階級の 抵抗에 부딪침. 봉건지주계급은 예속자본가로 전환, 오직 革命的인 方法만이 地主와 農民間의 모순을 解決할 수 있다고 보고

○ 50 ~ 53 年間의 民族解放鬪爭은 反帝·反封建 民主革命이라는 歷史的 課業을 成就하기 위한 민주적 鬪爭이었다고 봄.

○ 歷史的 教訓

프롤레타리아 政治鬪爭은 프롤레타리아가 革命權力을 樹立하는 것이 궁극의 目標이며, 革命勢力의 모든 階級鬪爭을 集結시키고 組織化해야 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政治鬪爭의 核心的 內容 組織原理가 導出되는데 經濟單位의 組織과 行政單位의 組織(工場, 農村, 住民組織)이다.

- 전위적 정당과 제조직과의 관계에서 혁명권력은 中央集權的이지만 동시에 地方分權的인 民主集中의 변증법을 조직을 통해 실현하는 것으로봄.
- 조직적 정치투쟁만 民衆을 고무시키고 계급정치투쟁을 조직화하여 혁명세력을 국가權力으로 조직하는 것이 가능함.
- 부르조아지의 계급지배를 종식시키고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고자한다면 民主主義革命이 아니라 바로 民衆을 解放하는 民衆聯合獨裁수립이 되어야한다고 지적. 民主革命이 아니라 民族民衆革命이 남한의 당면한 혁명이며 사회주의혁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2) 諸般 革命理論에 대한 批判的 검토

(가) 시민민주혁명 (CDR)

- 시디알은 혁명이론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 民主化論者들이 갖고 있는 정향임.
- 남한에서 집권세력의 독재가 가능했던 조건은 안보논리로서 그 동안 民主化運動이 國民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안보논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
- 미국의 이해는 한반도에서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집권세력이 美國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反군사독재 연합전선의 국민적 지지확보는 군사독재를 고립무원의 막바지에 몰아 넣는 가운데 외세의 개입도 또한 배제할 수 있고 궁극적인 승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남한을 사회주의 대항 전진기지로 위치짓고 프롤레타리아에 대립하는 제국주의진영의 침병으로서 규정짓는 국제독점 자본의 논리는 이러한 反군사독재 民主化투쟁을 얼마든지 기만적으로 해결

해 버리고 만다. 따라서 CDR은 상부구조적 정치투쟁 위주로 전개되어 국제독점 자본의 이용물로 될수 밖에 없다.

(나) 민중민주혁명 (P.D.R)

「새벽의 찬가」를 인용하면서 민중민주혁명을 혁명의 탈을 쓴 경제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 지극히 낮은 수준에 처해 있는 革命에 이념을 부여하는 데 일차적인 임무가 있다. 「혁명적 지도력」(革命的 黨)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것이 긴요한 문제이다.

○ 민중민주혁명론자는 「실천적 필요」를 위해서라면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이론투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계급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에 의해 전사회적으로 재조직되고 또한 해방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 역시 혁명의 탈을 쓴 조합주의, 경제주의라고 비판

○ 민중민주주의자는 전위정당이 부재로 돌아감을 지적하고 民衆이 실천하는 계급전선은 민중민주주의전선이 되어야 한다고 함. 이러한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를 혁명의 탈을 쓴 조합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음.

○ 프롤레타리아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 계급투쟁은 가장 정치적이라고 하면서 人間의 해방은 프롤레타리아 스스로의 해방임과 동시에 지배계급의 해방도 包括한다고 지적함.

○ 민중민주혁명론자는 「무정견학」 무정부주의자가 될 뿐이라고 공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민중민주혁명은 혁명의 탈을 쓴 조합주의, 경제주의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다) 反帝民衆民主革命(AIPDR) 비판

남한의 民衆은 제국주의와 封建지배계급의 暴力的 抑壓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적 暴力, 封建的 權威, 情報網, 警察軍隊의 直接的 暴力下에서 고작 兪용노조밖에 갖지 못한 실정이다.

○ 민주혁명은 封建制社會로부터 부르조아사회로의 社會經濟的 土臺의 變化와 이에 조응하는 정치적 질서의 변화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封建支配階級에 대항하는 민주혁명진영은 농민, 부르조아지, 프롤레타리아며, 농민은 스스로를 한 계급으로서 조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만이 反封建民主革命을 遂行할 수 있는 각각의 독자적 계급이다.

○ 자본주의의 독점자본, 즉 제국주의에로의 發展은 신식민지의 反封建革命의 계급관계를 제국주의, 封建支配階級, 농민으로 규정짓게 되고,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封建支配階級을 포섭하게 될 때에는 反帝 反封建 민주혁명을 수행하는 것이 민족해방투쟁의 임무가 된다. 그러나 해방후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 反帝민중민주혁명사를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민중혁명권력은 스스로의 權力을 지키고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독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스스로 자유주의자가 되고 좀 더 발전하면 무정부주의자가 된다.

○ 부르조아지 민주주의국가에서 民衆 或은 프롤레타리아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정치적 조직과 경제적인 조직이 광범위하게 난립하고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스스로 부르조아지에 대해 충성스러운 피착취 계급으로 영원히 남아 있기를 자청하게 만드는 경제주의, 개량주의, 사이비 혁명론의 득세때문이다. 歴史的으로 이들 反프롤레타리아적인 「주의」들은

오류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설 새 없이 변신하면서 혁명운동을 왜곡시키고 있을 때 과감히 투쟁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 프롤레타리아를 「 지배계급으로서 조직 」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수립을 위해 치밀한 노력이 必要,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 모든 階級속으로 », 「 주민속으로 」 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反帝民衆解放戰線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權力으로서 民衆聯合獨裁를 要求해야 한다. 그러나 反帝 민주혁명론자가 주장하는 「 프롤레타리아만의 독자적인 조직화 」는 남한의 제 계급간의 계급투쟁과는 무관한 「 노동자의 국가 」를 조직하려는 것이 또한 남한의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적 과제이다.

○ 反帝민주혁명론자의 경제주의적 오류는 非프롤레타리아적 관점에 기인한다. 反帝민주혁명은 자유주의의 승리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라고 억지부리지 말고 철저히 자기비판을 통해 진실로 혁명적인 민족해방투쟁의 전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

(라) 三民革命論 비판

○ 삼민혁명론의 이론적 근거는 민족민주혁명론이다. 이 이론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에서 民衆解放運動이 반제·반封建革命이어야만 社會主義革命으로 進行할 수 있다는 데서 나온 혁명이론이다.

○ 남한에서의 현단계혁명은 ㉠국제독점자본의 논리에 따라 부르조아지민주혁명이 수행되었으며 자본주의적 발전이 급속하고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한의 기본 모순은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간의 계급 모순이 관철되면서 民衆이 추구하는 革命의 內容은 계급적 착취관계에서 비롯된 體制變化的인 要求로 된다. ㉢프롤레타리아가 遂行해야 할 革命은 국제독점자본의 계열에서 비롯된 抑壓, 窮乏, 소외를 격파하고자 하는 運動

을 토대로 국제독점자본과 예속독점자본의 민중착취구조를 撤廢하고자 하는 民族民衆革命이 되는 것

○ 민족민주혁명론은 反파쇼 민주화운동을 민주주의혁명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시함으로써 심각한 오류를 낳음. 민족민주혁명론은 어떠한 실천적 결과를 낳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민족운동과 민주운동에 대한 계급의 이해관계를 把握해야 한다.

첫째, 부르조아지계급은 국제독점자본의 예속집단이며 이에 대항하는 民族 부르조아지가 存立할 根據가 협소하다.

둘째, 뿌띠부르조아지는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가질 뿐 反美는 곧 親共으로 인식함으로써 革命運動에 쉽게 반동화하는 집단이다.

셋째, 뿌띠부르조아지중 독점에 반대하는 반제 민족해방투쟁에 참가하지만 反共·反프롤레타리아를 고수하는 집단으로서 기회주의적 동요성을 폭로해야 할 집단이다.

네째, 프롤레타리아를 비롯한 民衆은 구독재와 예속독점자본에게 착취와 수탈을 당하면서 생산관계에서 비롯된 민중착취구조를 撤廢하고자 하는 革命勢力이다.

○ 민족민주혁명이 反독재민주전선으로 귀착하든지 或은 세계급과 독립된 채 극좌 편향적인 反帝민족전선으로 분리되어 나가게끔 결과된다.

○ 파쇼에 대립하는 개념이 民主가 아니라 민족·민중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민주화운동이 남한혁명의 내용이 주요할 것으로 위치되어 왔던 것이다. 民衆民主主義를 설정한다고 해도 파쇼의 反프롤레타리아성과 反民主性間的 주종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민중과 민주를 동등하게 병렬했을 때 反民主的 파쇼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民主가 결과하고 만다.

○ 民衆을 抑壓하는 파쇼타도를 위해서는 제계급과 제휴하는 민주전선이 필요하다. 이는 남한을 지배하는 美帝로부터의 해방만이 社會主義革命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족전선이 설정되어야 한다. 민주전선과 民族전선은 계급성향에 의해 일치할 수 없는 상호모순적인 전선인 것이다.

○ 기계론적 결합으로 나온 三民理念이 小부르조아지民主化運動으로 귀결된다. 이것을 파헤쳐 보면 남한파시즘의 성격을 三反性이라 규정짓고 내부의 모순은 파시즘의 三反性에 저항하는 세 범주의 운동(民族, 民主, 民衆運動)을 낳음.

○ 민중운동의 힘이 民主化투쟁으로 통일되어 정치권력을 대치하기 위해 정치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하고 三民理念으로 무장된 전위인자들이 혁명적이고도 선도적으로 현단계혁명인 民主革命을 지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 삼민주의자는 첫째, 부르조아지 민주주의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大衆을 결집하고 부르조아지 민주주의를 폭로함으로써 대중을 획득할 수 있다고 봄. 둘째, 勞學同盟을 통해 民衆戰線을 강화하여 대대적 정치전선으로 민중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봄.

○ 三民이라는 非프롤레타리아적 이념은 프롤레타리아의 진정한 요구를 감지할 수 없으며 프롤레타리아를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 민중의 진정한 요구는 抑壓, 窮乏, 소외의 착취구조를 혁파하고자 하는 요구이며 제국주의와 예속파시즘에 대한 적개와 그 타도를 내용으로 함.

○ 최후의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를 삼민이념 대신 과학적 사회주의이념으로 무장시키고 「평등」을 의식시키며 「반제 민중연합 독재」에 의해서만 民衆解放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열적으로 선전, 선동, 투

쟁하는 쪽이 스스로를 위함보다 나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통일 民主革命(UDR) 비판

통일 민주혁명의 주요 논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자본제 사회에서 기본 모순은 제국주의 단계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민중간의 모순으로 발현되는데 이것이 규정모순이다. 국내 제국주의의 타도를 통해 규정모순의 해소과정인 국외 제국주의 타도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특수성으로 인해 남한혁명운동의 성격은 통일민주혁명이 된다. 그 결과 혁명의 폭력군(主力軍)에 북한의 프롤레타리아가 동시에 설정되며 혁명전선 또한 소조선적 관점으로 확대시켜 전략단계를 새로이 재수립해야 한다는 점

○ 북한은 소조선적 관점에서 국제 프롤레타리아와 나란히 갈 수 있게 된 반면 남한은 제국주의진영의 예속으로부터의 민중해방의 긴박한 임무로 다가왔다. 바로 이 점이 남한의 관점에서 反帝民族解放鬪爭 遂行을 要求하게 된다.

○ 蘇聯과 結合하여 南韓解放을 達成하고자 하는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분단이 남북사이의 분단이 아니라 사회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간의 첨예한 對立鬪爭의 최첨단에서 충돌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분단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南北統一도 남한의 제국주의로부터의 解放鬪爭에 의해 그 전기가 마련된다. 남한의 경우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통해 내부 역량을 키우고 남한의 프롤레타리아는 決定的 시기 내지 革命 後 北韓과 現實的 同盟을 맺고 南韓革命課業을 遂行하고 세계혁명전선에 동참할 수 있다.

○ 남한의 프롤레타리아가 民族解放戰爭에서 순결성을 잃고 反動진영

에 가담하였음. 혁명權力이 유지, 강화되고 반혁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人民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에 달려 있다. 本文件은 UDR의 논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指摘함.

○ 당면한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차후로 미루고 이를 전적으로 북한 역량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릇된 小부르조아지 정치노선은 결국 프롤레타리아의 전진을 가로막고 계급의 적을 강화시킴으로써 결정적 시기나 革命후의 과정에서 북한 프롤레타리아의 전략적 同盟을 통한 당면한 革命事業의 完遂와 社會主義革命으로의 이행을 내부로부터 가로막는 반혁명의 씨앗을 잉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結論적으로 本文件은 다음과 같이 主張한다. 南韓의 프롤레타리아가 共產主義복렉스를 극복하고 북한 프롤레타리아와 굳건한 계급적 同盟을 맺고 프롤레타리아의 순결성을 지니면서 사회주의혁명을 향해 개량적 혼돈없이 전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올바른 길은 南韓民衆이 全朝鮮民衆과 和解할 수 없는 美帝에 대한 反帝民族解放鬪爭을 통해 內部主體力量을 強化시키는 것이 일차적 과업이 된다는 것이다.

나. 分析批判

○ 本文件 제 2 장의 主要骨子は 既存 民鬪, 自民鬪系列의 路線을 改良主義 또는 소영웅주의라고 비판하고 그 代案으로 프롤레타리아가 북한의 프롤레타리아와 계급적 同盟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美帝에 대한 反帝民族解放鬪爭을 위한 主體的 力量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指摘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은 美帝와 革命路線의 混線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本文件의 2 장은 全體흐름이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역사 즉 레닌주의적

唯物史觀의 시각으로 南韓을 보고 혁명戰略을 反帝民族民衆革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함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의 시각은 스탈린식 레닌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겠다.

(1) 帝國主義가 수행한 부르조아民主革命

(가) 45年~48年

한국의 해방은 反파시즘 戰爭의 승리로 맞이했다고 보고 있다. 2次大 戰은 帝國主義 戰爭이라고 보고 있는데 즉 직접무장하고 있는 독점부르조아계급과 국제프롤레타리아 계급간의 불완전한 연합으로 본다. 이렇게 전쟁의 원인을 경제적인 계급문제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판단되며 저의가 분명한 ‘社會主義革命’으로 이끌기 위함으로 分析된다.

美軍政은 大衆的 革命情勢의 발전을 저지, 교란, 분열시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방해했으며 南韓을 유일한 政府로 認定함으로써 국제독점자본의 利益을 確保했다고 批判하고 있는데 이는 北의 視角과 같다.

그러므로 美帝에 대한 타도없이 民族解放鬪爭이 勝利할 수 없다고 하는데 北韓의 論理와 같음으로 그 저의를 충분히 把握할 수 있다.

(나) 1948 ~ 1956 : 反封建 民主革命의 완수

南韓의 獨立을 기만적 獨立으로 歪曲시키고, 오직 혁명적인 방법만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論理는 그들의 투쟁성을 과히 짐작할 수 있다.

50 ~ 53년의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민주적 투쟁이었다고 6.25를 완전히 歪曲시키고 있다.

48~56은 反封建 민주혁명을 완수했다고 보는 시각은 북한의 시각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論理는 南韓의 革命性格을 부르조아民主革命 다음 단계의 革命 즉 社會主義革命(프로레타리아가 주체가 되는 革命)으로 규정 짓고자 하는 論理이다.

(다) 歴史的 教訓

프롤레타리아 정치투쟁의 目的이 프롤레타리아가 革命權力을 쟁취하는 것이며, 民族民衆革命이 남한의 당면한 革命이며 社會主義 革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의 저의는 민주혁명단계를 설정한 自民鬪의 노선과 三民鬪의 노선, 民鬪의 노선을 비판하고 곧바로 社會主義 혁명에 이행해야 함을 뚜렷히 나타내고 있다.

(2) 諸般革命理論에 대한 批判的 검토

(가) 市民民主革命(C.D.R) 批判

시민민주혁명은 革命理論이 아닌 民主化論者들이 갖고 있는 경향이기에 정치투쟁에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論理는 上部構造的 정치투쟁 위주 이기에 革命理論이 아니라고 批判하고 있다. 이것은 政治的 民主化 투쟁이 目的이 아니라 NPR의 수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民衆民主革命(P.D.R) 批判

민중민주혁명도 혁명의 탈을 쓴 조합주의 경제주의로서 비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생산지 공개 정치투쟁을 축으로 주변의 비공개 정치투쟁을 계속하고 야학같은 외곽 대중조직을 활성화 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파업과 정치적 파업이 운동에 커다란 힘을 준다는 것 뿐이며 방향을 갖
춘다는 것은 보증할 수 없다고 批判하고 민중민주혁명론자는 「無政見한」
무정부주의자가 될 뿐이라고 공박하고 있으니 그들의 투쟁방법은 과히 짐
작하기 어렵다.(鬪爭方法이 이들 보다 더욱 左傾化・急進化되리라 예견할 수
있다.)

(다) 反帝民衆民主革命 (A.I.P.D.R) 비판

反帝民衆民主革命 역시 시대착오적이며 非主體的 환상에 빠져 있다고 批
判하고 있는데 프롤레타리아만을 歷史上 선정된 계급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고전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과 같다.

농민은 프롤레타리아와 결합함으로써 封建的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가능
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레닌의 노농同盟理論과 脈을 같이한다.

프롤레타리아 獨裁樹立을 위해 치밀한 努力을 強調, 모든 계급속으로, 國
민속으로 침투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무정부적인 상디칼리즘을 분
해하는 것이 남한의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적 과제로 지적하면서 反帝民衆民
主革命은 시대착오적이며 非主體的 환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비판을 통
해 진실로 革命的인 民族解放鬪爭의 전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맹렬히 비난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民族民衆革命만이 참이라고 하는 極左 도그마에
빠져 있음은 볼 때 그들의 투쟁노선과 방법이 非妥協的 급진적이라는 사
실을 역역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 三民革命論 批判

三民革命 역시 民族民主革命論의 亞流인 동시에 小부르조아 民主化 운동
이므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뽀띠부르조아지는 反美를 親共으로

인식하고 있고, 독점에 반대하는 급진진보주의자는 기회주의적 동요성을 갖고 있음으로 폭로해야할 집단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파쇼에 대립하는 개념이 民族 民衆이라는 것을 인식 못한채 있으며 三民革命論 역시 小부르조아지 革命主義者를 현혹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民衆의 진정한 要求는 抑壓, 窮乏, 소외의 착취구조를 혁파하고자 하는 요구이며 제국주의와 예속 파시즘에 대한 적개심 고취, 그 타도를 내용으로 하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를 三民理念 대신 科學的 社會主義 理念으로 무장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보면 그들의 저의가 民主化투쟁을 곧바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社會主義 革命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트로츠키의 永久革命노선과 脈을 같이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절대 경계해야할 극좌 이론으로 把握하여야 한다.

(마) 統一民主革命(U. D. R)

통일민주혁명 역시 主客이 전도된 혁명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革命이란 낭만적 사고방식이나 관념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는 제반요소를 철저히 헤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국제프롤레타리아와 나란히 갈 수 있게 된 반면 남한은 제국주의진영의 예속으로 부터의 民衆解放의 긴박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UDR은 南韓内部의 反帝民解鬪의 역량 배양없이 북한역량의 결합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소련과 결합하여 해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사대주의 오류를 범했다고 배격하고 있다.

남북통일도 평화적 원칙에 입각해 統一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을 제국주의로 부터의 해방투쟁에 의해 그 전기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볼 때 한국정부의 통일방식과는 완전히 좌표를 달리하며 월남식의 통일전략과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경계의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남한의 프롤레타리아가 공산주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북한 프롤레타리아와 굳건한 계급적 同盟을 맺고 프롤레타리아의 순결심을 지니면서 社會主義革命을 향해 나아가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은 확실히 급진 좌경론자들의 論理가 무엇인지 把握할 수 있다.

4. 第3章 ‘반제반파쇼 民族民衆革命 段階의 戰略과 戰術’ 內容要約 및 分析批判

가. 內容要約

本章의 內容은 크게 두部分, 卽 民族民衆 革命의 戰略部分과 戰術部分으로 構成되어 있다.

1) 반제반파쇼 民族民衆 革命段階의 전략계획 (戰略計劃)

가) 革命과 戰略段階

戰略이란 該當 革命段階 全般에 걸쳐 變함없이 一貫性있게 適用되는 基本計劃으로 規定되고 있으며 이는 南韓革命의 窮極目標인 社會主義 革命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現段階 革命의 性格, 目標등에 대한 科學的이고 正確한 認識 위에 基礎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南韓革命의 性格, 戰略目標, 革命의 全般的 基調와 制 계획등이 이 部問의 中心內容을 이루고 있다.

우선 現段階 南韓革命의 性格은 반제 반파쇼 民族民衆革命이며 그 戰略的 目標은 國際獨占系列과 帝國主義勞動關係에서 오는 抑壓, 窮乏, 疎外의 壓迫 등 獨占資本制的인 敵對的 對立關係에 기초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자하는 體制變革的 革命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삼민혁명론(민족, 민중, 민주혁명)의 3개 전선(민족자주권 수호 투위, 민족생존권쟁취 투위, 반파쇼민주화 투위)과 改憲싸움(파쇼憲法撤廢싸움, 憲法制定國民會議 構成提議, 서명운동추진본부 결성)은 체제변혁적이 아닌 改良主義的 傾向으로서 戰術上으로는 제휴·동맹이 가능하나 궁극적 목표는 될 수 없다고 본다.

南韓革命이 民族民主 革命段階內에서의 반제반파쇼 民族民衆革命의 性格을 띠게됨에 따라 民族民衆革命의 戰略的 目標은 美帝國主義, 新植民主義 體制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民族自主(民族解放)民衆聯合獨裁가 지배하는 반제민중정권, 반제반파쇼 민족민중 혁명정권을 樹立하는데 있다고 본다.

나) 南韓革命戰略의 全般的 基調

南韓革命戰略의 全般的 基調를 보면 혁명 성공시 초기 정권 형태는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임시혁명 政府이며, 그 강령과 정책은 미제와의 단절, 소련, 북한과의 등거리외교 내지 직접적인 대외관계 수립, 經濟施設 國有化를 통한 反革命 저항세력의 분쇄, 민족해방군의 창설등을 內容으로 하며 권력의 성격과 形態는 民衆聯合獨裁(勞動者, 農民, 都市貧民, 급진적 리버럴)로서 그 一次的 任務는 革命後 말단 行政官吏를 제외한 일체의 반동관료들을 철저히 말소하는데 있다.

다음은 이와같은 革命遂行을 위해 세력배치계획(동맹세력의 대상범위 결정)이 구상되고 있는바 南韓革命의 주력군(기본세력)은 南韓의 프롤레타리아이고 國內豫備軍으로는 農民, 都市貧民, 급진적 리버럴(진보적 청년운동, 민통련, 제민주단체)과 적내부의 대립, 모순관계를 利用할 수 있는 能力(間接豫備軍), 그리고 기존의 革命 성과물이며, 국외예비군으로는 북한 프롤레타리아, 國際 社會主義 力量을 들고 있다.

다음은 주타방에 대한 계획으로서 주타방이란 概念은 통일전선에서 농민 都市貧民과 동맹한 프롤레타리아가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면서 여타의 제휴세력을 혁명전선내로 통일시켜 나가는 전략적 지도내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統一戰線內의 다른 勢力, 즉 급진리버럴과 보수리버럴(신민당, 민주협, 보수정치세력)이 전선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력화, 고립화 또는 중립화시키는 전략이다. 이렇듯 戰略目標 수행을 위해 프롤레타리아가 누구와 동맹하고 누구를 중립화시킬 것인가를 옳게 책정하고 동시에 혁명적 제세력으로 하여금 공격, 후퇴에 있어 속도상실이나 시기상조에 빠지지 않도록 전술전환의 속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戰略指導의 핵심임무가 된다는 것이다.

2) 當面한 戰術上的 任務(戰術部門)

이 부분에서는 위의 戰略目標達成을 위한 제전술을 批判・檢討하여 現段階에서의 가장 유효적절한 戰術을 제시하고 있는바 핵심내용은 勞動者 秘密 政治集會를 包含한 地域勞動同盟結成과 組織活動 그리고 슬로간의 채택 利用에 두어지고 있다.

가) 戰略的 段階와 戰術的 時期에 대하여

먼저 南韓內的 現段階는 戰略的 방어기에서 戰略的 대치기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으며(방어기→대치기→공세기) 이에 따른 戰術時期는 방어형 우회 공격형 전술을 택할 수 있는 전술적 고양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나) 戰略과 戰術과의 關係에 대하여

戰術이란 革命運動의 만조와 간조, 고양기와 침체기등 비교적 짧은 期間에 있어 프롤레타리아가 行動을 취할 路線을 定하고 그 路線을 實踐해나가는 鬪爭을 말한다. 이 戰術은 狀況에 따라 隨時로 變하는 것이며, 만조기의 이전이라도 지나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제휴등을 행하고 우회공격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격형태를 보면 美帝國主義에 대해서는 우회공격형전술로서 경제 침략과 매국예속성을 폭로, 선전선동하여 포위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88년 外國人 投資가 100% 許容되어 인민과 直接的 對立이 전면화될 때 直接

스트라이크가 可能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반면 現政權에 대해서는 선전선
동, 행동전의 양상을 띠는 直接的 공격형태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 鬪爭路線의 批判的 檢討

다음은 現在까지의 鬪爭路線을 批判 檢討하면서 地域勞動同盟組織의 결성
을 대안으로 암시하고 있다.

(1) 모험주의적 政治鬪爭觀 批判

우선 진정한 의미의 대중 政治鬪爭路線은 革命的, 科學的 理論으로 무장
된 전위의 올바른 指導와 實踐이 선진勞動者를 매개로 廣範圍한 노동대중
과 결합되어 政治적 鬪爭을 展開하는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다음은 이를 바탕으로 볼때 現在 노동대중으로부터 유리되어 政治鬪爭으
로 나가는 '기로'의 鬪爭路線은 주력군(노동계급)을 부정한 오류가 있
는 모험주의라는 것이다.

(2) 모험주의적 政治鬪爭觀의 改良的 本質

반면에 삼민개헌투쟁은 3個의 戰線이 하나로 統一되지 못한채 第3戰線
인 반파쇼 民主化戰線(民主化鬪爭戰線)이 目標인양 本質을 흐려놓아 民族
民衆의 問題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改憲鬪爭, 파쇼헌법철폐론자들 역시 공격해야할 핵심목표가 종속파쇼정권의
예속성임에도 불구하고 개헌 그 자체가 목표인양 認識하여 帝國主義 타도
民族民衆解放이라는 궁극목표로 노동대중을 유도하지 못한채 오히려 개량주
의에로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격목표는 美帝國主義와 연결된
파쇼종속정권의 예속성이며 이것이 가장 취약한 핵심고리로서 이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는 전위가 노동대중과 결합하여 민중의 物理的·組織的 基盤
을 擴大·強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올바른 政治鬭爭의 한 戰術로서의 “ 勞動者秘密政治集會 ”에 관하여

이에 따라 政治鬭爭力량의 極大化를 통해 勞動階級의 鬭爭力량을 강화하고 根據地 組織力량을 確保하기 위해 소위 ‘ 노동자비밀정치집회 ’의 결성을 제안하고 있다. 同集會의 역할은 선진적 勞動者와 초보적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訓練을 강화하고 선진노동자의 재생산, 정치소조의 실천적 통일 전체적 시각에서의 지역투쟁의 수행을 도모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라) 組織路線과 組織活動에 대하여

다음은 具體的인 조직결성과 그 運營活動을 제시하고 있다.

(1) 組織事業에 대한 展望

먼저 가장 긴박한 組織活動의 과제를 ① 革命的 인텔리겐차의 전위화 ② 선진적 勞動者의 전위화 ③ 노동자계급 內部로부터 노동대중과 결합된 선진적 노동자의 창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 지역노동동맹 ’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 地域勞動同盟 ’의 의의는 革命的 戰略單位인 민중전선의 핵심지도단위를 이룩하는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根據地를 確保하고 認識과 實踐의 統一體를 確保한다는데 있다.

여기서 노학운동중 학생운동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월감이나 관념주의에 빠지지 말고 勞動者階級에 대한 階級意識과 實踐, 鬭爭, 組織力량을 強化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 실제적 방법

‘ 地域勞動同盟 ’의 결성의 실제적 방법을 보면 우선 事業場 單位의 소그룹주의를 극복하고 地域次元에서의 專門的 實踐組織과 선진노동자층의 핵

심적 政治鬭爭을 組織化하여야 한다는 基本方針에 기초하여 運動의 高립분 산성을 극복하고 유기적 조직활동과 鬭爭의 총체적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의 協議會活動을 組織하고 그 下位單位로서 政治教育部, 선진노동부, 鬭爭委員會, 組織部, 政策開發部 등의 專門的 實踐組織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專門實踐組織의 任務는 기존의 수공업적 조직을 결집, 統一시키고 組織內的 事業場鬭爭을 유발하며 각 실천조직간의 통일성, 연대성을 確保하려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組織事業의 핵심적 문제인 선진적 노동자를 確保하고 이들을 전위 力量化시키기 위해 革命的 인텔리겐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들의 任務는 社會主義의 理念과 강령,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政治學習을 수행하는 한편 이론과 실천과의 결합 차원에서 각종 공개, 비공개 정치집회 거리투쟁, 추모식, 법정재판, 정치적 성격을 띤 文化行事등 모든 社會的 活動에 參與시킴으로써 그들의 계급의식과 實踐的 鬭爭力量을 增大시키는 데 있다.

마) 슬로간에 대하여

한편 當面戰術課題로 위에서 살펴본 組織事業外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곧 슬로간에 대한 內容과 方向提示이다.

(1) 슬로간과 鬭爭目標

슬로간이란 鬭爭目標를 간결·명확하게 공식화한 것, 具體的으로는 운동강령을 대중의 계급적 요구에 입각하여 간략·명확하게 정식화한 것을 뜻한다.

이와같은 슬로간은 戰略的 슬로간과 戰術的 슬로간으로 區分되는데 後者

가 前者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슬로간에서 重要的 것은 戰略的 과제 수행과 戰術的 課題 實現을 매개하는 運動의 핵심고리에 대한 把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슬로간 채택의 方向에 대하여

그 핵심고리 즉, 슬로간 채택방향을 여기서는 現政權의 反民族的 매관 예측성에 두고 있다. 따라서 선전선동의 主要方向이 이 예측성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다각적인 공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具體的으로는 美文化院 점거, 美商工會議所 점거 등과 같은 現實의 主·客觀的 條件에 대한 正確한 分析없이 관념상의 구호나 외치는 運動보다는 海外協力委員會 事務室이나 外國人投資案內센터 등을 점거하여 現政權의 예측성과 매국성을 폭로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美帝의 經濟·軍事支配收奪에 대한 반대·규탄투쟁과 더불어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우회공격전술로 선전선동의 성격을 띠어야 하고 現정권에 대해서는 선동행동전의 양상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공격의 조건 또한 主·客觀的으로 分析되고 있는데 客觀的 條件은 통상법 301 조에 의한 全面的 市場開放과 國內資本의 대외 증속화, 그리고 88年의 外國人 直接投資 100% 許容이 그것인 바 이러한 토대위에서 能動的으로 主體的 條件을 確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체적 조건이란 統一問題에 대한 民衆的 視覺을 定立하는 것으로서 정권연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統一論議를 폭로하고 統一論議가 民衆的 次元에서 民族解放이라는 民衆階級解放的 視覺을 바탕으로 廣範圍하게 進行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具體的 슬로간의 方向과 內容이 제시되고 있는데, 주 슬로간은

‘미제의 경제군사침략규탄과 매국정권타도…’이며 제 2 슬로간은 ‘종속파쇼의 反民衆的 매관예속 정권을 타도하고 民衆政權의 樹立’을 강조하는 方向이며, 제 3 슬로간은 ‘예속정권의 反民主的 정책저지분쇄와 타도’를 強調하는 것이다. 또한 각 슬로간에는 具體的 內容을 담은 변형슬로간들이 예시되고 있다.

* 補論

補論에서는 改憲싸움에 대한 集中分析과 對處方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 內容을 보면, 革命戰略의 目標가 반제반파쇼 民族民衆革命政權의 樹立으로 社會主義革命을 완수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改憲이 目標인 양 오도하고 民衆의 階級意識, 鬪爭意識을 방기해 버리고 노동대중을 改良化시키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따라서 改憲싸움은 어디까지나 부차적 戰術로 利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무장봉기의 必要性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革命에서 핵심적 內容은 우세한 무장력 확보와 國家機關의 파괴, 機能變更, 再組織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 分析批判

(1) 반제반파쇼 民族民衆革命의 戰略戰術의 全體要約

우선, 基本的으로 이들의 반제반파쇼 民族民衆革命論의 戰略과 戰術을 全體적으로 要約해볼 必要가 있다.

이들의 理念上的 궁극적 目標는 社會主義革命을 遂行하는 것이며, 現段階에서의 革命의 性格은 반제반파쇼 民族民衆革命이다. 이를 위한 戰略的 目標는 南韓에서의 美帝逐出과 美帝의 자기 실현체인 종속파쇼정권을 타도하고 民族自主的이고 民衆的 要求에 입각한 民族民主革命政權을 樹立하는데 있다.

이 革命의 推進力은 基本勢力인 노동계급 (M-L 主義 革命黨)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가운데 都市貧民, 農民과 동맹하고 급진리버럴, 뿌띠부르조아지 (민통련, 제민주단체)와 제휴한 廣範圍한 반제 민중전선이며 그 권력의 형태는 현존 國家機構의 철저한 파괴위에 선 민중연합독재이다.

이러한 課題를 遂行하기 위해 이들은 廣範圍한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대중의 革命的 行動을 하나의 行動으로 결집하여 대중정치투쟁을 수행할 革命的 組織을 결성하고 組織的 實踐을 통해 강고한 대중적 기반위에서 革命的 政治鬭爭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이들은 現時期를 방어기에서 대치기로 이동해가는 戰略的 段階로 보고, 고양기의 戰術形態인 방어형적 우회공격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現時期의 주공격대상은 現政權의 연속성이란 핵심고리에 두고 모든 슬로간과 선전선동, 행동성을 이곳에 집중시킨다는 戰術이다.

전체적인 특징은 ① 반제반파쇼 民族民衆革命政權樹立이라는 확고한 戰略目標 設定 ② 노동階級이 헤게모니를 권 統一戰線의 確立 ③ 革命의 물적토대 구축을 위한 民衆과의 결합과 그들의 階級意識, 투쟁의식 강화, ④ 이를 위한 地域노동 聯盟과 實踐組織의 결성·擴張, ⑤ 現政權의 연속성이란 핵심고리 공격에 목표를 둔 슬로간과 대중정치투쟁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위를 좀더 자세히 分析 批判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반제 반파쇼 民族民衆革命의 戰略部分

이와같은 全般的인 戰略·戰術의 특징을 좀더 자세히 論議해보고자 한다.

(1) 반제 반파쇼 民族民衆革命의 目標: 體制變革的 革命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社會主義 革命이며, 改良的・改革的 路線이 아닌 自由民主體制 전복 路線으로서 革命政權 樹立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革命의 궁극적 목표가 社會主義 革命이고…’,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는 體制變革的인 革命性’, ‘반제반파쇼 民族民衆 革命政權을 樹立’, ‘革命成功時 초기 정권형태는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臨時革命政府’, ‘反革命勢力 분쇄를 위한 民族民衆解放軍의 창설’ 등을 強調하는 點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 民衆聯合獨裁政權은 經濟的 열쇠를 손아귀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관중공업, 대규모 경공업, 交通施設, 銀行을 國有化하고 對外交易 國內外國銀行, 現地企業의 國有化와 外債동결을 遂行하며 여타의 中小資本을 國家의 統制속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革命을 위해 이들은 現段階를 방어기에서 대치기로 이동하는 시기로 보고, 帝國主義에 대해서는 우회형 공격형의 선전선동을 통한 폭로, 포위전술을, 현 파쇼 정권에 대해서는 선전선동 행동전의 직접적 공격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이들의 目標은 自由民主體制 타도의 革命이다. 이들은 社會主義 革命이 完成되지 않는한 새로운 政權이 國民의 지지속에 탄생한다 하더라도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2) 위장된 실제적 목표 : 南韓에서의 美軍축출 (北韓의 對南革命戰略 戰術과 一致)

이들의 실제적 目標은 南韓에서의 美軍축출이며 궁극적으로는 北韓의 對南革命戰略戰術을 따르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반제반파쇼 民族民衆 革命이 자신들의 目標라고 繼續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나 論理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美軍철수를 주장하는 論理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이들이 말하는 반제는 곧 反美帝國主義를 뜻한다. 예컨대 ‘현 단계 革命의 目標은 南韓에 있어서 美帝國主義를 축출하고’ ‘강령과 政策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美帝國主義의 南韓에 대한 政治·經濟, 軍事的 支配의 일소...’ ‘南韓民衆에 대한 軍事的, 物理的 基盤인 駐韓美軍支持撤廢’ ‘즉 美帝의 경제 침략을 규탄·성토 결사반대하고’ ‘現政權의 예속성에 대한 공격은 미제에 대해서는 선전선동이 되며’ ‘우리의 戰略目標인 미제와 예속과쇼를 타도함에 있어’ 등 겉으로는 民族民衆을 위한 革命을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美軍의 축출을 달성하고자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南韓에 들어와 있는 여러 다국적 기업과 外國資本 中에서 오직 美國만을 타도대상으로 하고 여타 國家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이와같은 이들의 論理와 주장은 곧 北韓의 3大革命力量強化의 하나인 南韓의 革命力量強化戰略과 一致하고 있다. 즉 南韓에서의 政治的 混亂과 美軍축출등, 對南革命의 諸般 與件造成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北韓 프롤레타리아(즉 北韓 勞動黨)를 國外豫備軍의 첫째 勢力으로 두고 있으며 다만 현단계에서 동원해서는 역효과가 날뿐이라는 몇가지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반제 반파쇼 民族民衆革命의 戰術部分

가) 사상적·이념적 기반과 戰略戰術의 性格

이들의 사상적 이념적 기반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이며, 戰略戰術論은 레닌-스탈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들은 南韓의 現代史를 마르크스주의의 토대와 上部構造에 따라 이분법

적으로 보고 있으며 革命遂行에 대한 기본시각을 社會 經濟的 토대의 變
革에 두는 同時에 스탈린주의 教義의 핵심인 상부구조-토대간의 變증법적
상호작용론을 받아들여 소위 위로부터의 革命을 強調하고 있으며, 意識과
실천의 統一을 繼續 주장하고 있다.(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1902, 스탈
린의 레닌주의 기초 1928 參照)

레닌·스탈린적 戰略戰術의 要所로는 戰略과 戰術의 區分과 後者の 前者
에 대한 복종, 주력군과 豫備軍, 만조·간조기, 전선사령부등의 軍事用語, 레
닌의 制國主義論에서 비롯된 핵심고리에 대한 시각 등을 들수 있다(스타
린의 레닌주의 기초)

특히 革命的 인텔리겐차, 學生運動 등이 勞動階級에 대한 階級意識을 鼓
吹시키는 전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 중앙집권화되고 강력한 유대와
統一을 이룬 政治鬭爭組織의 強調는 레닌의 黨理論에 뿌리를 둔 것이다.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參照)

따라서 이들을 단순한 운동권이나 비관세력·改革主義者로 보는 것은 오
류이다. 이들의 論理와 주장은 분명히 직업적 共產主義 革命家들의 그것이
다.

나) 전형적인 統一戰線戰術 使用

이들의 戰術에서 하나의 특징은 전형적인 統一戰線戰術을 使用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들은 급진리버털을 제후세력으로 보고 있으며 改憲鬭爭, 三民
革命 등도 地域勞動同盟이 基本이 된 統一戰線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다.

南韓에서의 주력군은 南韓프롤레타리아 階級(共產黨)이고 農民, 都市貧民

급진적 리버럴은 國內豫備軍으로 볼 뿐이다. 따라서 革命戰線의 헤게모니가 급진적 리버럴에 돌아가지 않도록 견제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력화, 고립화 시킬 것을 強調하고 있다.

보수리버럴은 반제반과소民衆戰線에 결코 편제될 수 없는 第2의 예속집단으로 中立化戰術의 對象이 될뿐이다. 이들은 改憲鬪爭(三民改憲, 과소憲法撤廢運動, 憲法制定議會召集要求, 서명운동추진본부결성)을 民族民衆革命(當面目標)의 부차적 戰術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改憲鬪爭 그 自體를 目標로 함으로써 노동대중을 오도하거나 개량주의에 빠지게 하지 말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점은 三民革命論의 第3戰線인 반과소 民主化 戰線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適用되고 있다. 따라서 改憲鬪爭에 나서는 제 세력들도 이들의 目標에 부합되는 한에서만 제휴되고, 利用될 뿐이다.

다) 共產主義地下運動組織性向과 무장봉기 可能性

이들의 대중정치투쟁의 성격은 공산주의 지하운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적당한 때가 오면 무장봉기할 可能性이 있다고 점이다.

우선 이들은 레닌의 前衛理論(1902)에 기초하여 革命的 인텔리겐차가 선도적 노동자나 초보노동자들에 대해 社會主義 理念과 강령, 그리고 세계관을 주입시킬 任務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비공개 政治鬪爭의 한 戰術로서 ‘노동자 비밀정치집회’의 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政治集會는 소위 ‘地域勞動同盟’의 形態로 결성되어 專門的 實踐組織들을 매개로 地域次元의 대중정치투쟁으로 擴散·強化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現實把握은 現在를 開放局面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법 301 조로 통칭되는 지적 소유권, 商品特許權, 保險法 등의 일괄타결에 의한 全面的 市

場開放과 더불어 國內의 資本, 株式, 金融開放에 따른 對外 증속의 表面化가 이룩되는 때, 그리고 보다 重要하게는 外國人 直接投資가 100% 全面 許容되는 88년에는 革命의 客觀的 條件이 창출되는 時期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分단으로 유리한 자와 분리한 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하고, 分단을 고착화시키는 美帝國主義와 現 越속정권의 本質을 폭로하는 民衆的 次元의 統一論議를 廣範圍하게 展開시켜 民衆的 視角을 定立함으로써 主觀的 條件을 성숙시킨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統一 이데올로기를 利用하여 政權과 美國에 대한 도전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이들이 戰術적으로 利用하는 슬로간이 重要的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共產主의 地下組織의 性格은 이들이 政治組織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가운데 인혁당사건, 남민전준비위사건, 전노련사건 등을 重要的 經驗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問題는 이들이 적절한 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무장봉기할 可能性이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혁명은 모든 階級이 目的意識적으로, 組織적으로 움직이는 公開的인 政治鬭爭’으로서 ‘이 때 各 階級은 스스로 무장하고 行動하는 대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조아지의 전국가권력을 파괴하고… 反革命을 저지’해야 하는데 이는 오직 ‘부르조아지의 國家權力에 대응하는 프롤레타리아의 權力이 무장된 프롤레타리아에 의해 保障되어야’만 可能하며 ‘이것이 소비에트, 또는 45년의 人民委員會로 지지되는 人民主權’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革命에서의 핵심적 內容은 우세한 무장력 확보와 國家機關의 파괴, 機能變更, 再組織’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革命이 소련 볼셰비

키 모델을 따르는 무장봉기성 革命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 運動圈內의 주도권 쟁탈전 징후

이 자료가 운동권의 의식화교재라면 운동권 세력내에서 주도권 쟁탈을 위한 투쟁이 展開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로는 이들이 소위 三民革命論者들의 第3戰線이, 民衆을 改憲論議가 目標인양 오도함으로써 궁극적인 반제 반과소民族民衆革命政權 樹立이라는 목표를 희석시켜 버리고 있다고 비판한 점이다.

또한 '기로'는 대중과 결합되지 못한 관념주의적, 전위만의 행동주의적인 활동(극좌모험주의)만하고 있으며 '정노'는 노동대중과의 결합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맹공격한 점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美文化院 점거나 美商工會議所점거 등은 현시점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결국 路線設定과 活動方向에 대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에 기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資料의 製作・配布 勢力이 주도권을 獲得할 경우 非妥協的 革命路線을 견지하면서 운동권의 活動은 보다 노동대중속으로 浸透해 들어가 組織基盤을 擴張하고 政治鬭爭을 보다 組織化하는 급진적 혁명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IV. 結 論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정표(NPR의 인식과 실천)」의 기본성격은南韓에서 부르조아民主革命이 성취되었으므로南韓에서의 社會主義革命에는 이것이 불필요하며 民族民衆革命(反帝 反資本主義革命)을 거쳐 곧바로 社會主義革命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論理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序文의 內容을 보면 南韓革命의 隊列속에 自身들의 권위유지나 세력확장에 몰두하는 革命家들이 있어 사상투쟁에 흥미를 거둬주고 있는바 그 대표적 경향은 經濟主義的 경향과 급진적 관념론적 경향(좌익 기회주의)이라는 것이다.

경제주의적 경향은 “정치적 노동운동 정립” “새벽의 찬가”에서 보듯이 經濟主義가 아닌것 처럼 주장하면서 최근의 민추위사건과 임금투쟁시기를 전후하여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급진적 관념론적 경향은 三民, 三反과쇼타도, 三民改憲싸움, 反과쇼三民戰線등이 혁명역량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혁명역량을 감소시키는 소모전을 일삼고 있는 좌익기회주의적 오류를 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經濟主義者들로 하여금 반격할 구실을 제공하였다고 言及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두 경향은 南韓革命의 物質的 土台에 관한 모호한 인식, 모순관계에 대한 자의적 해석 혁명전략전술에 관한 무지때문에 革命理論에 혼란을 惹起하고 있다. 이들 범주에는 市民民主革命(CDR), 民衆民主革命(PDR), 反帝PDR, 統一民主革命(UDR), 三民革命의 전략전술論이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文件의 의도는 앞의 두 경향과 理論的 混亂에 대처하고 南韓革命의

性格과 투쟁노선을 바로잡자는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本文件은 다음과 같은 논점과 問題意識에 立脚하여 民族民衆革命의 正當性を 擁護하고 있다.

- ① 고도로 資本主義화된 植民地社會革命의 特質問題
- ② 資本의 歴史的 存在糾明
- ③ 常識적으로 일컬어지는 帝國主義와 과시즘間的 關係糾明과 本質把握
(국제독점자본=국제과시즘:예속독점자본=예속과시즘)
- ④ 남한 一國革命과 세계혁명의 關聯性 糾明
- ⑤ 南韓에서의 民主革命의 問題糾明
- ⑥ 南韓프롤레타리아트의 主體性和 北韓과의 올바른 결합의 문제
- ⑦ 南韓內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同盟과 제휴의 問題
- ⑧ 大衆性和 前衛性を 적절히 결합한 科學的 전략전술의 定立問題

다음으로 資本主義 現단계와 南韓社會의 性格(제1장) 糾明은 다음과 같은 要旨를 展開하고 있다.

資本主義의 現단계는 이제까지 알려진 國家獨占資本主義 段階를 넘어선 美帝主導의 「국제독점자본주의 단계」이며, 南韓社會가 부르조아民主主義를 실질적으로 거친 社會이며 國際獨占資本主義에 예속된 예속독점자본주의사회라는 점과 그 상부구조로 국제과시즘에 예속된 예속과시즘이라고 糾明하고 있다.

그러므로 南韓社會의 기본모순은 生産의 사회적 성격과 私的所有間的 모순이며, 現단계의 주요 모순은 국제적 생산과 독점적 소유간의 모순, 즉 新植民地民衆과 國際獨占資本 및 社會主義진영과 국제독점자본주의간의 모순이고, 부차적 모순은 新植民地 민중대 예속독점자본, 新植民地쁘띠부르조아지對 예속독점자본, 신식민지쁘띠부르조아지對 국제독점자본, 신식민지민중對 신식민

지쁘띠부르조아지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주변자본주의론”은 생산관계에서가 아니라 不平等 交換이라는 유통관계에서, 계급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에서 南韓社會와 선진 국사이를 說明하는 등, 우경기회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이며, 國家獨占資本主義 論은 정치, 경제적 關聯性을 무시하고 經濟的 論理만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설명함으로써 국제독점자본과 남한 민중간의 모순을 認識하지 못하고 形而上學的 唯物論에 따라 실천적으로 改良主義, 機會主義, 無政府主義등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가? (제 2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言及하고 있다.

南韓은 1945年부터 48年사이에 프롤레타리아트의 反帝反봉건혁명과 제국주의의 부르조아民主革命간의 對立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열세이기는 하였으나 美軍에 의해서 反봉건民主革命만은 1948年부터 53年 사이에 완수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市民民主革命은 上部構造的 政治鬭爭위주였고, 民衆民主革命은 革命에 탈을 쓴 經濟主義, 組合主義였다고 지적하고, 反帝民衆民主革命은 모호성과 극좌모험주의로의 귀결이라고 비판하며 아울러 民主革命의 시대착오성과 非主體的 환상성을 비판하면서, 三民革命은 小부르조아의 民主化 追求로 가는 오류를 범하고, 統一民主革命은 主客이 전도된 북한추종 및 의존주의라고 모든 革命論을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서 自身들의 民族民衆革命(NPR)에 따라 南韓프롤레타리아트가 레드 콤플렉스를 벗어날때 北韓프롤레타리아트와 계급적 동맹을 맺고 社會主義革命을 향해 前進하기 위해서는 反帝民衆解放 鬭爭을 통한 內部主體力량의 강화가 곧 1次的 重要問題라는 것을

糾明하고 있다.

끝으로 反帝反과쇼 民族民衆革命단계의 전략과 전술(제 3 장)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現段階의 전략목표는 南韓에 있어서 미제를 축출하고, 그 예속정권을 타도하고 反帝反과쇼民族民衆革命政權을 樹立하는 것이라고 言及하고 있다. 그 力量配置計劃은 革命主力軍으로서 南韓프롤레타리아트, 국내예비군으로서 농민, 도시빈민, 급진적 自由主義勢力, 學生運動, 進步的 青年運動, 民統聯, 諸民主團體, 특히 間接 豫備軍으로서 적 내부의 對立과 모순, 國外豫備軍으로서 北韓의 프롤레타리아트, 國際社會主義力量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일치하는 勢力은 同盟勢力, 利害가 일치하는 勢力은 제휴세력, 間接的 도움이 되는 모든 勢力이 모두 豫備軍이라고 할때 同盟軍은 도시빈민, 농민(농업노동자 빈민, 영세소농)이고 北韓프롤레타리아트, 國際프롤레타리아 革命力量은 國外 豫備軍이면서 전략적 同盟이 要求되며 특히 北韓프롤레타리아트 力量과의 同盟이 要求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전략과 전술의 관계를 논하고 利用할만한 鬪爭, 組織形態 및 슬로건의 유형까지 적고 있다. 끝으로 改憲鬪爭은 부차적 전술로서만 필요하며 小부르조아지의 타협성을 民衆이 不信하도록 利用하는데 意味가 있고, 그 같은 目的을 달성하는데 급진小부르조아지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結論적으로 本文件은 좌익급진革命主義者中的 일파로서 反帝民衆解放 民衆聯合獨裁를 거쳐 社會主義革命을 다그칠려는 人物에 의해서 作成된 것이다. 즉 民主革命段階는 不必要하며 政權을 차지하는 대로 말단 行政官吏를 除外한 일체의 반동관료를 말소하고 資本主義를 소멸시키는 社會主義革命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하기 위해서 民族民主解放軍의 創設으로써 반항세력을 분쇄할 計劃도 言及하고 있다. 환언하면 市民民主革命, 民衆民主革命, 三民革命, 反帝民衆民主革命등과 같은 民主의 革命段階를 따로 거칠 必要가 없이 民族民衆革命을 통해 社會主義革命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예컨대 철저한 레닌式革命主義이며 타협없는 프롤레타리아獨裁를 追求하면서 初期에 急進自由主義勢力(學生運動, 進步的 青年運動 및 民統聯 등)만 利用하고 나머지는 조기에 타도하겠다는 극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